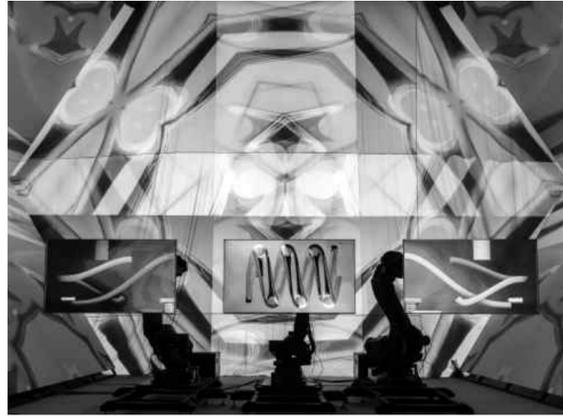


예술과 기술의 결합... 환상적 이미지와 통제의 명암

ACC '빅 브라더' 13일부터
코로나 감시사회 이면 고찰
창제작 '환상극장' 18일부터
로봇이 안내하는 빛의 여정



'친애하는 빅 브라더'에 출품된 임용현의 '달콤한 트루먼'(왼쪽)과 '환상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팀 보이드의 'Odd Spheres'.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을 매개로 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그로 인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기술과 예술이 구현하는 이미지에 대한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어디까지 테크놀로지 영역이고, 어디까지 아트 영역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그보다 예술과 기술 융합으로 구현될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될 뿐이다.

예술과 기술의 결합, 환상적 이미지와 통제의 명암을 고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두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ACC의 특별전 '친애하는 빅 브라더'와 미디어아트 전시 '환상극장'이 그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최원일)과 아시아문화전당(원장 이기표)은 코로나 감시사회를 모티브로 한 콘텐츠와 로봇암(팔)이 펼쳐내는 빛의 여정을 체험할 수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최한다.

먼저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친애하는 빅 브라더'(복합6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도래한 '감시'에 대한 양면을 집중 조명한다. '빅 브라더'는 원래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이다. 독재자로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로 세뇌와 감시에 능하다. 일방적인 '빅 브라더'는 그러한 감시체계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투영돼 있다.

그러나 '친애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빅 브라더'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감시, 투명한 정보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상반된 두 어휘 결합은 오늘날 통제와 자유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지 고민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 아시아 시각 예술을 통해 이슈와 담론을 조명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ACC가 지난 2017년 시작한 지역 연계 프로젝트로 마련됐다.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사회 공익과 개인 존엄의 새 기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공론의 장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예술가 8인(팀)이 참여했다.

광주 출신이거나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이연숙, 임용현을 비롯해 덩 위핑(베이징), 아지 아오(상하이), 짐폼(도쿄), 아이사 흑손(마닐라), 하산 엘라히(랑푸르), 정 말라(홍콩) 등이다. 이들은 커미션 신작 4개의 작품 등 모두 10작품을 선보인다.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펼쳐지는 '환상극장'(복합1관)은 로봇과 다중매체 기술을 활용한 전시다. 만화경으로 꾸민 공간에서 로봇 암(팔)의 움직임과 매체 작품이 유희를 펼쳐낸다. 특히 로봇 암이 안내하는 다채로운 빛과 이미지의 만화경 속에서 관람객은 찬란한 빛의 여정을 체험할 수 있다.

전시장은 국내 매체예술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토대로 3장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장에서 만나는 작가 작품은 양민하의 '뛰는 여인들'. 이 작품은 수학적, 물리적 연산방식에 따라 생성된 수많은 역학 벡터를 토대로 만들었다. 초고속으로 촬영된 영상을 2차원 동작 벡터로 전환하며 벡터는 영상의 화소 값을 품은 채 200만

개의 선을 제어한다. 이렇게 재생성된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에 정교한 변형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장은 팀 보이드의 '이상한 구체'다. 구와 큐브, 원통 등의 움직임을 동작 그래픽으로 구현한 뒤 각각 움직임에 따라 변형되는 디스플레이를 표현한다. 이때의 이미지는 현실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낯선 인상으로 다가온다.

우주의 대 서사시를 엿볼 수 있는 장면도 있다.

세 번째 장 '코스모스 우주의 시공간을 거닐다'는 키네틱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기록 영화 '코스모스'를 재해석했다. 짧은 순간 우주의 시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경이로움과 만나게 된다.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1899-556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8·15에 전하는 북과 북의 울림

전남도립국악단 '악의 연대기' 유튜브·네이버TV 채널 공개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깨어났던 것은 바로 잡고, 썩은 것은 도려내고, 냉큼 이름에 걸리는 해방을 하(許)하라. 두둥!"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광복 76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오후 3시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뮤지컬비디오 '악(樂)의 연대기'(사진)를 공개한다.

'악의 연대기'는 전남도립국악단이 그동안 선보였던 온라인 공연 '감성처방전'의 시즌 3 네 번째 공개작으로, 일흔 여섯 해를 맞이한 대한민국 8·15에 전하는 북과 북의 연대 울림이다.

대북과 용고, 모듬북 등의 타악 앙상블로 온갖 물줄기가 하나로 합체되어 큰 물결을 이루는 역동의 이미지를 담고자 했다.

특히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전남도청광장, 평화광장 등지에서 계림라 촬영을 시도해 평화로운 일상 속 작막을 깨는 북의 울림으로 현장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으며, 변화무쌍한 북의 리듬과 비트에 따라 빠르게 전환돼 보는 이의 흥미를 자극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립국악단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뮤지컬비디오 '악의 연대기' 리뷰 이벤트도 진행하며, 오는 9월에는 미안마 민주화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음악회 '미안마의 봄, 광주를 만나다'(1일)를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4일)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문의 061-285-692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무의식 세계, 타자와의 관계 그려

고성만 시인 '케이블카 타고...' 펴내

시를 쓰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자신의 시적 성취를 위해, 삶의 기록의 방편으로, 내면의 울림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등등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러나 고성만 시인이 시를 쓰는 이유는 독특하다.

"언젠가 친구들과 함께 섬으로 건너가다가 바다에 빠졌는데 어지러운 파도 속에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 자지러지게 난타하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다급하게 부르는 것 같았다. 그를 위해 여태 쓰는 중이다."

부안 출신 고성만 시인이 여섯 번째 시집 '케이블카 타고 달이 지나간다'(여우난골)는 지나온 삶의 편린을 그린다.

시인수첩 시인선 46번으로 발간된 작품집에는 모두 6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조르바', '떠돌이 점성술사', '큰고니에게', '안개 속에서', '사나흘 펜션' 등의 작품은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무의식의 인지를 시로 형상화한 것이다.

"내가 한 마리 심해어로 태어나/ 멀어버린 눈 대



신/알록달록 지느러미 흔들어/ 너에게 다가가고 있을 때// 세이렌에 홀려/ 자욱한 안개 속 방향을 잃었을 때/ 흐르다 멈춘 길 끝/ 섬이 있었다/ 돌계단 돌아 올라 도착한 벼랑..."

위의 시 '흐르다 멈춘 곳에 섬이 있었다'는 무의식 세계, 타자와의 관계 등을 내밀한 시어로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의 내면은 고유의 기억과 사유의 바다가 출렁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은 역사적 층위로 전이되며 오늘의 삶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게 한다.

이상국 문학평론가는 "문학을 사는 시인은 실천과 가치의 총체가 무엇인지 어둠을 밝혀 우리 앞에 놓는다"고 평한다.

한편 '동서문학'으로 등단한 고 시인은 시집 '올해 처음 본 나비', '술품을 사육하다', '햇살 바이러스', '마네킹과 킷서비스맨'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존' '은신처'...삶 속 균형을 모색하다

안태현 시인 '최근에도 나는...' 펴내

한평 출신 안태현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최근에도 나는 사람이다'(상상인)를 펴냈다.

모두 80여 편이 실린 작품집에는 삶 속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시적 지향을 엿볼 수 있는 시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공존', '은신처', '별호' 등의 시는 다양한 삶을 그리고 있지만 이면에 드리워져 있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담담한 시선과 균형 감각이다. 김운정 문학평론가의 말대로 "삶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이자 삶의 궁극적 목적"이자 "삶의 일부에 존재하면서 외부로 작동하는 특수한 장치"이기도 하다.

"읽을 수 있도/ 지금이란 시간은/ 당신이 보낸 편지가 아니다// 하마터면 후회할 뻔했으나 명백하게 흔자다 그리고 마침내 음각으로 새겨졌지 만// 최근에도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게 하려고/ 웃고/ 잊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들/ 울고// 성의껏 먹는다// 태어나는 동시에 날아가 버린 아름다운



목소리를 찾아서/ 검은 풀잎 위를 걷는다."

표제시 '최근에도 나는 사람이다'는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사람'을 지향하는 곳 곳한 면모와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견고한 시적 자아를 보여준다. 허무와 부정, 비판의 심연에 빠지지 않고 '검은 풀잎 위를 걷는' 것은 시적 지향을 넘어 오늘의 우리를 향한 속삭임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시인에게 시는 특별한 무엇이 아닌 생활 속에 존재하는 친근한 사물로 상정된다.

김운정 문학평론가는 "시인의 시가 단순히 생활의 리얼리즘적 반영의 그것이 아니라 시인의 모험을 구축하는 축의 성진을 지닌다고 하였던 것"이라고 평한다.

한편 안 시인은 2011년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이탈의 신간', '저녁 무렵에 모자 달리기'와 산문집 '피아노가 된 여행자'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im e Bnong Solar Energy